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7월 22일(목) 총 5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 당 자	• 치매관리팀장 조명희 ☎440-2981 • 담당자 윤지숙 ☎440-298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위한 부드러운 혁명 인천시, 전국최초 ‘치매환자 인간존중 돌봄기법’ 도입

- 시 · 인천광역치매센터, 프랑스 휴머니튜드 교육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
- 전문 트레이너 5명 양성, 인천시 공립 치매시설 중심으로 도입 -
- ‘치매친화 도시 인천’ 조성에 의미 있는 한 획 긋는 뜻깊은 출발점 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치매환자 인간존중 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 케어’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휴머니튜드(Humanitude) : 프랑스어로 인간다움을 뜻함.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2일 인천광역치매센터와 함께 휴머니튜드 교육기관인 프랑스 국제 지네스트-마레스커티(IGM) 연구소와 휴머니튜드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체결식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성우 인천광역치매센터장, FRANCK DE VIVIE IGM연구소 대표가 참석했다.

세 기관은 ▲휴머니튜드 트레이너(레벨3) 5명 양성 ▲인천시 공립 치매시설을 중심으로 휴머니튜드 도입 ▲치매환자 가족 및 시민대상 세미나 개최 등을 해나가며, 치매환자의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돌봄 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광역치매센터는 2019년 6월, 국내 최초로 휴머니튜드 개발자 이브 지네스트를 초청해 국제 치매 케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적용해 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모든 과정은 다큐멘터리 ‘부드러운 혁명’으로 제작되어 KBS에서 방영됐으며, 방영 후 치매환자 돌봄 기법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으나, 그간 시와 광역치매센터는 휴머니튜드 본격 도입과 활성화에 앞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 다큐 ‘부드러운 혁명’ 독점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상 휴머니튜드 사전교육, 전국 최초 치매환자 인권선언문 선포 ▲ 치매환자의 인간중심 돌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치매 돌봄 기법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시는 올해 5명의 휴머니튜드 트레이너(레벨3)를 양성하고 내년부터 인천시 공립 치매시설을 중심으로 휴머니튜드 돌봄기법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치매친화적인 도시 인천시의 공공 돌봄 현장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출발점이다”고 말하며 “‘휴머니튜드’의 숭고한 돌봄 철학이 인천시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적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치매환자를 위한 부드러운 혁명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휴머니튜드’는 프랑스 치매환자 케어 전문가인 이브 지네스트와

로젯 마레스커티가 개발한 돌봄 기법으로 <보다/말하다/만지다/서다> 4가지 인간의 기본 특성을 활용해 400여 가지의 케어방법을 매뉴얼화한 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11개국에 국제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중심의 도입은 인천광역시 최초이다.

<붙임> 관련사진 및 휴머니튜드 개념 및 국제 지네스트-마레스코티 연구소 소개

※ 관련 사진은 행사(17시)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휴머니튜드 개발자 이브 지네스트(환자 역할) 와 제2시립노인치매요양 병원 의료인의 돌봄기법 교육 장면

참고

휴머니튜드란?

- **개 발 자** : 이브 지네스트(Yves Gineste)와 로젯 마레스코티(Rosette Marescotti)
 - **개발동기** : 1979년 프랑스 체육학교사 퇴직 후 치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치매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적인 케어보다 인간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케어를 했을 때, 인지기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경험, 환자중심의 케어 방식인 ‘휴머니튜드’ 연구
 - **핵심기법**
 - <보고>, <말하고>, <만지고>, <서는> 인간의 기본 특성을 활용해
 - 400여 가지의 케어 방법을 매뉴얼화
 - **휴머니튜드 도입 현황**
 - 국제지부 설치국(11개국) :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 프 랑 스 : 2003년 휴머니튜드 교육을 위한 「지네스트-마레스코티 연구소(IGM)」 등 14개 지부 설치 및 400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간병시설이 휴머니튜드 케어 시행
 - 일본사례 : 2014년부터 24개 주요 의료센터에서 종사자 3,000명 교육
 - **휴머니튜드 효과**
 - 적용 후 4개월 만에 신경이완제 투여량이 85% 감소(프랑스)
 - 말하기 반응 2배 이상 증가, 눈맞춤 반응 23.8배 증가
 - 치매 진행속도 감소
 - 2019년 인천시 국제치매워크숍 후 적용 효과
 - 대상 : 제1, 2시립 노인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중증치매환자 12명
 - 효과 : 환자 상태 변화(침상생활 → 보조기 의지하여 걷기, 자가 용변 가능)
- ※ 인천광역시가 휴머니튜드 도입 시, [공공기관 중심 도입은 최초 사례](#)

《IGM (Institut Gineste-Marescotti International, Eternis SA)》

- 프랑스에서 2003년부터 휴머니튜드 교육을 위해 설립한 「지네스트-마레스코티 연구소」
- 현재 프랑스내 14개 지부와 400개 이상의 의료기관·간병시설에서 휴머니튜드 케어 시행 중 (프랑스외 10개국 도입 '21. 6월 기준)

○ 국제 지네스트-마레스코티 연구소

(Institut Gineste-Marescotti International, Eternis SA)

대 표	성 명	주 요 경 력
	Franck de VIVIE	○ 現) 휴머니튜드 IGM Representative(Director)
	 <p>Franck de Vivie Direct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t Institut Gineste-Marescotti International 파리 지역 · 연락처</p> <p>Institut Gineste-Marescotti International Grenoble Ecole de Management</p>	
경 력	<p>○ 2012. 2월 ~ 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지네스트-마레스코티 연구소 (Institut Gineste-Marescotti International) 국제 개발 책임자 (Direct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VP 컨설팅 앤 서비스 (VP Consulting & Services) 대표 - IGM 네트워크 국제 개발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IGM network) <p>○ 2009. 1월 - 2012. 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리플라스트 관리 & 엔지니어링 서비스 (Veriplast Management & Engineering Services) 영업 부사장 (Executive VP Sales Operations) 	